

# 전기전자

## Dragon's Tech Tree #1. iOS7 리얼 체험기

2013. 7. 5

전기전자  
Analyst 김현용, CFA  
02.3779-8955  
hyunyong.kim@etrade.co.kr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확 바뀐 iOS7과 빨라지는 애플의 행보 때문이 아닐까?

백견이 불여일행(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많은 iOS7 리뷰를 보는 것보다 직접 iOS7 베타 버전을 깔아서 써보기로 한 이유이다. 일주일 간의 생생한 체험기를 지금 공개한다. 참고로 필자는 갤럭시S 6개월, 아이폰4 18개월, 옵티머스G 6개월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후 현재 아이폰5를 6개월째 사용 중이다.

### iOS7의 핵심은 차별화를 통한 범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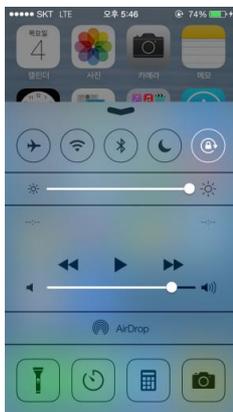
iOS7을 직접 사용하며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컨트롤 센터, 멀티태스킹, 그리고 천지인이 다. 아이폰을 하단에서 위로 슬라이드하면 컨트롤 센터가 나타난다. 여기서 와이파이/블루투스, 회전잠금, 밝기/볼륨을 조절하고 손전등이나 계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강화된 멀티태스킹이다. 일부 앱에 한해 제공되던 기능이 iOS7에서 모든 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넥서스7의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 필자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다. 또 국내 사용자에게 기쁜 소식은 천지인 자판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정식버전 지원여부는 미정이나, 메시지 오타가 현저하게(필자의 경우 10분의 1) 줄어드는 점은 강력한 장점이다.

물론 단점도 있었다. 일부 앱은 아예 실행이 안되고 일부 앱은 자주 튕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정식버전 출시전 해결될 부분이라 iOS7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총평을 하자면 iOS7은 디자인이 간결해지고 UI가 크게 바뀌었으며, 편의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즉, 차별화된 UI로 기존 고객층이 원하는 “애플만의 독특함”을 살리면서도 편의기능 강화로 “잠재고객층 흡수”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애플이 입생로랑 CEO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iWork(애플 오피스 S/W)의 iOS7 무료 탑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애플의 변화는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더욱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변화의 핵심은 iOS7이 될 것이다. 확 바뀐 UI는 더 이상 경쟁자들이 베낄 수 없도록 애플에서 특허로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뀐 iOS UI에 최적화하기 위해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앱스토어용 앱 개발에만 더욱 매진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애플 생태계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애플의 목적이다. 애플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차별화”된 iOS7를 중저가 아이폰에 탑재함으로써 iOS를 널리 확산시켜 “범용화”하는 것이다.

[그림1] iOS7의 변화 #1. Control Center 기능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iOS7의 변화 #2. 천지인 자판 지원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